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03

# 홀다 예언자에게 묻다

(열왕기하 22:3~23:3, 역대하 34: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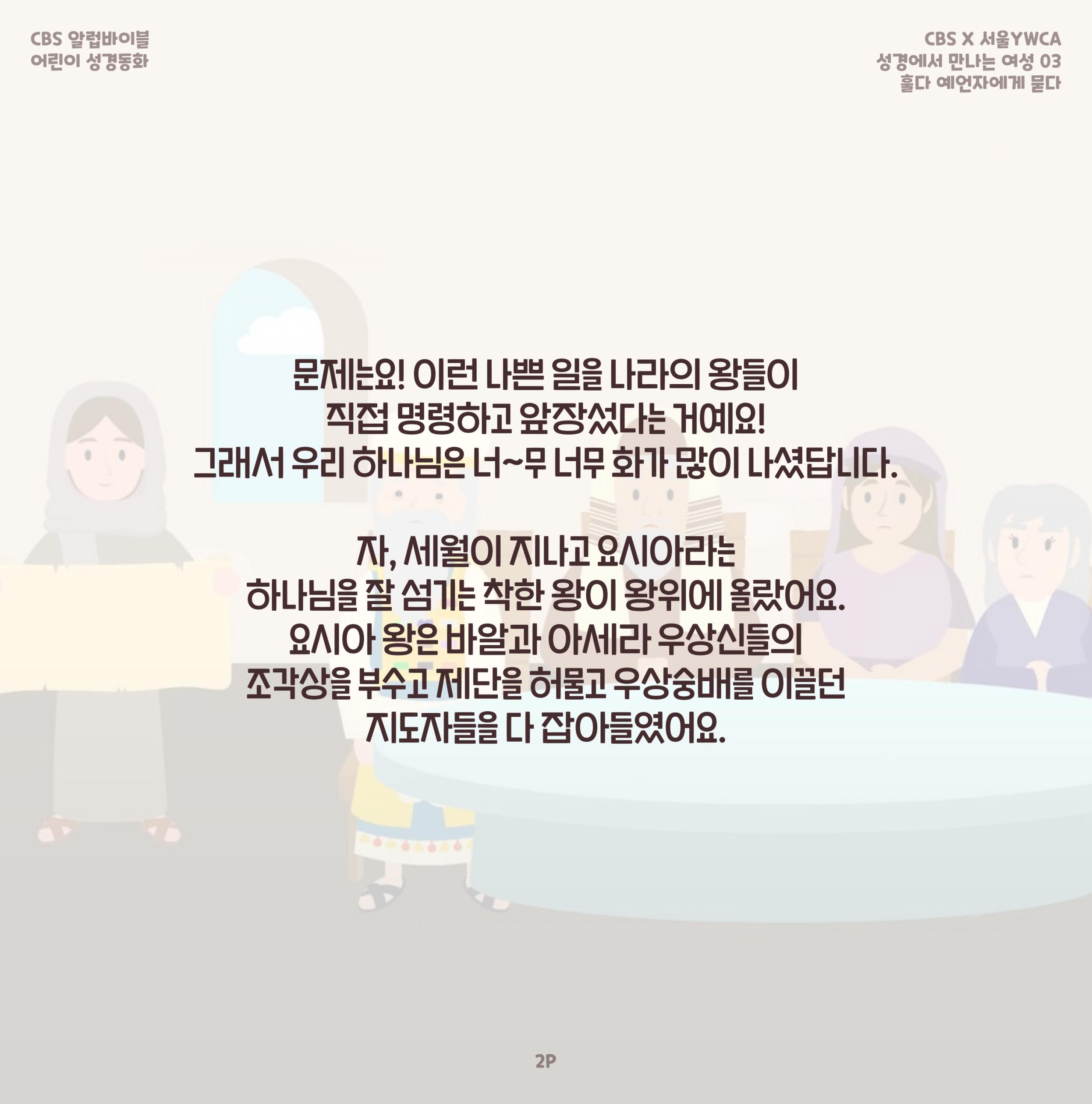
안녕,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해석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여성 예언자  
홀다에 대해 알아보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몇 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나라 여기저기에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같은  
우상신에게 절하고 소원을 빌었지 뭐예요.

“바알신이시여~ 아세라 여신이시여~  
우리 모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옵소서~”



**문제는요! 이런 나쁜 일을 나라의 왕들이  
직접 명령하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너무 화가 많이 나셨답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요시아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착한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요시아 왕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들의  
조각상을 부수고 제단을 허물고 우상숭배를 이끌던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왕은  
왕궁의 서기관을 불러 명령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아  
늡고 고칠 곳이 많더군요.  
그동안 백성들이 성전에 바친 헌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시요!”**

왕의 명령에 따라 솜씨 좋은 목수와  
기술자, 노동자들이 모여서  
똑딱똑딱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정성들여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어라, 이건 책 같은데...?  
가만, 그냥 책이 아니고 율법책이 아닌가.  
와우, 역사적인 대발견이 될지도 모르겠어!”**

대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이 펼쳐보았는데 책안에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는 거였어요!

서기관은 책을 들고 요시아 왕에게  
쏟살같이 달려갔어요.

“폐하,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오래된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서기관은 부들부들 떨며 율법책을  
읽어내려 갔어요.

율법책의 내용을 듣던 요시아 왕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ㅠㅠ”**

눈물을 훔치고,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자, 그대들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고 이 백성과 온 나라를 대신하여  
이번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많이 나셨소...ㅠㅠ”**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신하들은 율법책을  
잘 해석해줄 예언자를 찾아 나섰어요.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홀다였어요!

홀다는 예루살렘 근처 신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 살룸은 왕궁에서 입는 예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홀다는 남편과 함께 옷감을 손질하고 있었을 지도 몰라요.

평범해 보이는 이 여인을  
왜 왕궁의 높으신 분들이 찾아갔을까요?

그건 바로 훤다가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는 여성이 차별받던 현실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했답니다.

대제사장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훤다에게 율법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왕게서 이 책에 쓰인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십니다.”**

훤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사람들을 앉힌 뒤, 그들이 건넌 율법책을  
손에 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왕에게 가서 전하시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 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신들에게 절하고 섬겼던  
모든 일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백성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네가 죽을 때 평안히 무덤에 묻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아 왕은 훤다의 이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장로와, 제사장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왕은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크게 읽고 외쳤어요.

**“나는 주님을 따를 것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노라~!”**

그리고 요시아 왕은 온 나라 안의 이방신전과  
우상들을 다 없애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다시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성 예언자 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지혜로운 훤다 예언자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훤다를 기억하기 위해 성전을 오가는 문에  
'훤다의 문'이라는 이름까지 붙였고요, 성전 근처에는  
무덤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오직 다윗왕과 훤다의 무덤은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